

韓 · 美 기준금리 향후 전망

□ 美 연준, 3월 21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25bp 인상

- 美 기준금리 인상으로(1.25~1.5% → 「1.5%~1.75%」)
한국 기준금리 1.5%(17.11.30~현재)를 근 10년 만에 상회
- 美연준은 올해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을 3회로 예상하고 있으나, 글로벌 IB들은 올해 4회 정도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 (※ 3월 금리인상 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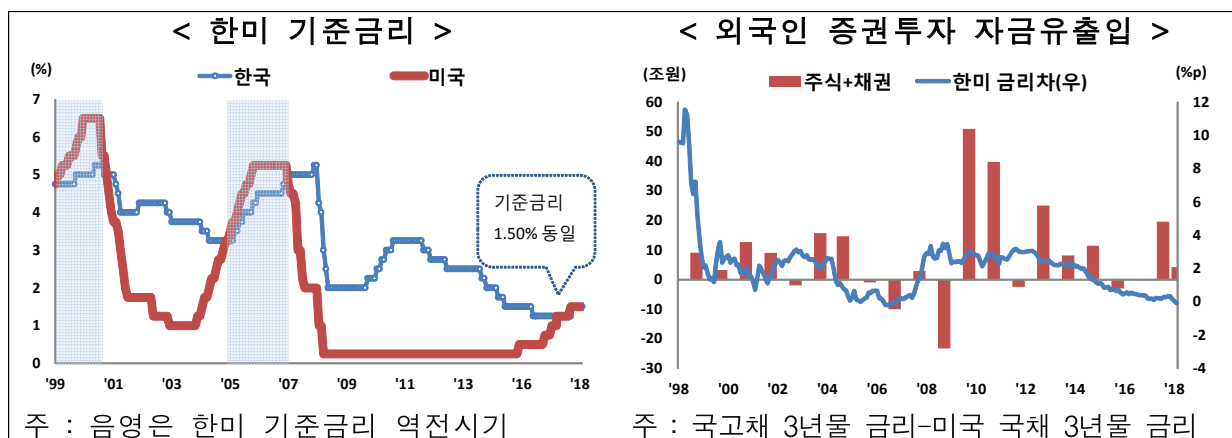
< 글로벌 IB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 >

	제이피모건	BNP파리바	골드만삭스	무디스	평균*
3월	○	○	○	○	○
6월	○	○	○	○	○
9월	○	○	○	○	○
12월	○	○	○	○	○

* 글로벌 IB 65개사 대상, FOMC 회의 일정 : 1월(동결), 3월, 5월, 6월, 7월, 9월, 11월, 12월, 자료 : 블룸버그(3.23일 전망 기준)

□ 과거 韓·美 기준금리 역전 시의 외국인 자금 흐름

- ①'99.6~'01.2월, ②'05.8~'07.8월 등 2차례 韓美 기준금리가 역전
 - '06년(②기간)의 외국인 자금 유출은 '04년 하반기부터 美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발생한 달러캐리트레이드 청산이 원인



□ 現 상황에서 외국인 대규모 자금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 다수

- 1) '00년대 중반과 비교 시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 (A→AA)
- 2) 대폭 개선된 대외지급 능력 (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: 80%→ 30%대)
- 3) 주요국 대비 높은 시중금리 수준 (국채3년(3/16, %) : 日 △0.12, EU △0.41, 韓 2.28)
- 4)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, 안정적인 원달러환율 (2/28 :1082.8→3/23:1082.2)

※ '18.2월말 외국인은 우리나라 상장주식 시가총액 1,936조 원 中 621조 원(32%), 상장채권 1,679조 원 中 103조 원(6%) 보유 중으로,

- 외국인 보유 주식 및 채권은 양국 금리차이보다 경제 펀더멘털에 의한 국가별 포트폴리오 투자이므로 자본 유출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
<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 보유현황 (금감원) >

('18.2월)	시가총액(a)	외국인잔고(b)	외국인비중(b/a)
주식	1,936조원	621조원	32.1%
채권	1,679조원	103조원	6.2%
합계	3,615조원	724조원	20.0%

* '18.1~2월, 외국인은 오히려 약 5조원의 국내채권 순투자 (1월 +2.3조원, 2월 +2.6조원)

□ 4월 韓 금통위,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

- 글로벌 IB들은 경제여건*상 韓기준금리 인상시기를 3분기로 예상하고 있으나, (* 금통위 일정 : 1월(동결), 2월(동결), 4월, 5월, 7월, 8월, 10월, 11월)
- 만일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제시될 경우, 2분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음

※ (참고) 금리 1%p 상승 시 영향 (* 韓銀 금융안정보고서, '17.12월)

① 가계대출 차주의 소득 대비 추가 이자부담액 1.5%p ↑,

② 잠재부실기업 비중 1.1%p ↑ 및

잠재부실기업 부채가 전체 기업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 1.0%p ↑

< 한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 > (* IB 22개사 대상, 블룸버그 3.23일 전망 기준)

	제이피모건	SC	골드만삭스	바클레이즈	평균*
1분기	X	X	X	X	X
2분기	X	X	X	X	X
3분기	○	○	○	○	○
4분기	X	X	○	○	X

(작성자 : 경제금융팀 대리 송주경 jk24031@ibk.co.kr, ☎02-729-7385)